

제주도 방언의 주거 문화 관련 어휘 연구*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을 대상으로-

김순자

Abstract

Kim, Soon-ja. 2018. 08. Study on Vocabulary Relating to the Housing Cultures in Jeju Dialect: Around Seongeup folk village, Seogwipo-si. *Korean Linguistics* 80. 49-8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systematize Jeju dialectal words about Jeju traditional housing culture and study them on the basis of lexical semantics. Vocabularies related to the names of the traditional thatched-roof house and its partial names, thatching, supplementary facilities, housing culture, etc. were categorized after recording in an ethnographic way from Seongeup folk village which is Important Folklore Material no.188, and studied them linguistically. Informants are fore people who were born and bred in Seongeup-ri and they are over 70.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s building thatched-roof houses from a young age. There are 9 different categories - the kind of the house, partial names, exterior space, materials, tools, words about actions, doers, units, and folklore. Some new words related to Jeju traditional housing, which had not been in the list of Korean dictionary, could be introduced as a result of the study. For example, rice which are made when doing earth work is called *Heukppap* and adzes used to sharpen stones are called *Dolchagui*. The finding of These new words hopeful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rich vocabulary on housing. Furthermore, the collected vocabularies and oral materials could be used as important educational materials to comprehend Jeju traditional housing culture.

주제어: 제주도 방언(Jeju Dialect), 민족지학(ethnography), 전통 주거 문화,(Traditional housing culture), 성읍민속마을(Seongeup folk village), 초가(thatched-roof house)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사라져가는 제주도 전통 주거 문화와 관련한 어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B5A07044580).

회를 성읍민속마을¹⁾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어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주거 문화와 관련한 체계적인 조사로 인한 자료 집적은 주거 문화의 어휘의미망(시소러스)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논문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어휘를 설명할 때에는 언어민속학적인 요소도 기술하여 제주 사람들의 주거 문화의 특징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국어사전 등 사전에 기술된 주거 관련 주석이 제주 언중들의 인지적인 특징과 다르거나 잘못된 경우는 바로잡아 제시함으로써 향후 사전 발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도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다.

성읍민속마을에는 아직도 전통 초가가 많이 남아 있다. 이 마을 주민들 상당수는 아직도 전통 초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주거 문화와 관련한 어휘는 빠른 속도로 잊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 주거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성읍민속마을로 유입하는 것도 이 마을의 주거 관련 어휘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다.

따라서 성읍민속마을에서 주거 문화와 관련한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어휘의 주석과 민속적인 특징을 아울러 살피는 것, 국어사전 등에 잘못 주석된 주거 문화 관련 어휘를 바로잡고, 사전에 올라 있는 얇은 어휘를 발굴하여 새롭게 보고하는 일은 매우 유의미한 연구다.

성읍민속마을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른 지역과 달라서 주거

1) 성읍민속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1리를 가리킨다. 조선시대 정의 현청이 500년 가까이 있었던 유서 깊은 마을로, 마을 자체가 국가민속문화재 188호다. 객주집(국가민속문화재 68호), 고평오 고택(# 69호), 고창환 고택(# 70호), 한봉일 고택(# 71호), 대장간집(# 72호) 등 전통 초가 다섯 채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유·무형 문화재가 마을 곳곳에 산재해 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마을에는 605세대 1390명(남 734, 여 656)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363세대가 감귤·당근·무·더덕 등 농사를 짓고, 242세대는 식당과 토산품 가게 등을 운영하고 하고 있다. 연 1회 민속축제를 열어 전통 문화 전승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와 관련된 독특한 어휘들이 많이 남아 있다. 건축 재료, 집 구조와 모양, 짓는 방법 등은 물론이요,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지역과 유다른 점이 독특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2.1. 선행 연구

그동안 제주의 전통 주거 문화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과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을 뿐 국어학적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건축학적 연구는 김홍식(1977, 1981), 신석하(1976, 1988)가 있고, 민속학적 조사 연구는 김영돈(1977, 1997)과 고광민(1999)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어학적 논문은 강영봉(2001)이 있다.

김홍식(1977, 1981)과 신석하(1976, 1988)는 건축학적 측면에서 제주도의 민가와 성읍리 건축을 소재로 연구하면서 주거 관련 어휘를 부분적으로 소개하였다. 김영돈과 고광민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주거 관련 어휘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민속학자와 국어학자 등에 의하여 제주의 민속 문화 차원에서 주거 관련 용어와 어휘 연구가 부분적으로 수행되었다.

강영봉(2001)은 제주의 주거 문화 관련-거왕·굴목·눌굽·막살이·뱃거리·무땡·백브름·봉덕·상방·올레·우영- 17개의 어휘가 지닌 의미를 국어학적으로 고찰하였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거 문화 관련 어휘를 국어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서정섭(2000)과 위진·손희하(2005) 등에 의해서 고찰되었을 뿐이다. 서정섭은 주거 공간인 ‘집’의 어휘 의미와 어휘망 내의 상호 관련성을 살폈다. ‘집’ 관련 어휘를 고유어계열, 한자어계열, 외래어계열로 구분하고, 집의 크기와 규모에 의한 어휘, 집의

용도, 집의 재료에 의한 어휘로 나눠 살폈다. 위진·손희하 등은 의궤 등 고문헌에 나타난 주거 공간 문화와 언어 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처럼 주거 문화 관련 연구는 집 이름과 몇몇의 집 관련 문화와 관련된 어휘 연구에 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제주의 전통 주거 문화와 관련한 종합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연구는 서둘러야 할 과제다.

2.2. 연구 방법

2.2.1. 제보자

제보자는 성읍민속마을 출신으로 오랫동안 성읍1리를 떠나보지 않은 70대 이상으로, 집을 지었던 경험이 풍부한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을 지었던 경험이 풍부한 송○원(1937년 생)을 주 제보자, 초가장²⁾ 강○용(1947년생), 집줄 만들기와 흙질 경험이 풍부한 이○생(1931년생)과 김○자(1940년생) 등 3명을 보조 제보자로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표 1>은 제보자 정보이다.

<표 1> 제보자 정보

연번	이름	생년	조사 마을	특이 사항
1	송○원	1937년생	성읍1리	열일곱 살부터 60년 이상을 집일. 문화재 지정 가옥을 수리 10년 가까이 함.
2	이○생	1931년생	성읍1리	집줄 만들기, 흙질 경험
3	강○용	1947년생	성읍1리	초가장(초가 이기 전문)
4	김○자	1940년생	성읍1리	집줄 만들기, 흙질 등 경험.

- 2) ‘초가장’은 성읍민속마을에서 제주 초가를 짓는 기술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인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4월 18일 제주도민속자료 제19호로 ‘초가장’을 지정했다. ‘초가장’은 목공, 석공, 토공, 모공 분야 각 1명씩 4명으로 이루어졌다. 성읍민속마을의 초가지붕 교체는 ‘초가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2.2.2. 현지 조사

조사는 선행 연구와 자료 검토, 그리고 현지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현지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 사이에 3차례 이루어졌다. 조사는 민족지학적인 방법으로 제보자와 면 대 면 구술채록 방식을 취하였다. 1차는 선행 연구 자료에서 발췌한 어휘를 토대로 주 제보자 송○원(1937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하였고, 2차는 예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약식질문지를 가지고 주 제보자 송○원과 3명의 보조 제보자를 대상으로 집 종류, 부분 명칭, 외부 공간, 재료, 도구, 행위 관련 어휘, 행위자, 단위, 민속 등 9개의 범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부족한 부분은 3차 보강 조사로 메웠다.

질문은 <예시>처럼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제주도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친밀함이 형성되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집을 지었던 경험을 들으면서 집의 종류도 함께 조사하였다. <예시>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 정보다.

<예시>

@ 삼촌 이제까지 그냥 간단하게예, 집 지었던 경험, 어떤 집 지어나신지 간단하게 얘기해줍서.

성읍리는 초가 사칸에서 삼칸, 이칸 해서 삼 단계로 집을 짓주.

@ 예.

계민 사칸집은 네 칸을 말허는 거고, 삼칸은 세 칸을 말허는 거고, 이칸은 두 칸을 말허는 것이 초가집이라.

@ 알앗수다. 집 종류도예, 초집 말고도 여러 가지 잇잖아예, 삼간집 이간집 말고 어떤 집들이 이 성읍리에 잇수과?

초집은 이간집 삼간집 아니고는 집이 있어? 경 아녀민 그루후젠 불칫막엔 현 건 영 담 당 그자 영 담 당 그자 훈 칸으로 뉜 거.

이렇게 해서 조사된 녹음 자료를 한글로 전사한 후에 주거 관련 어휘인 ‘이간집, 삼간집, 불칫막’ 등의 어휘를 추출하고, 제보자들의 설

명과 사전의 주석을 참고하여 어휘 의미를 해석하였다. 어휘 해석은 국어학적 측면에서 어휘의미론적으로 하고, 여기에 언어민속학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설명하였다. 녹음기는 소니 ICD-SX734/SX1000을 이용하였다.

3. 제주도 초가 관련 어휘 고찰

제주도 전통 주거 문화 관련 어휘는 53쪽의 ‘2.2.2. 현지 조사’에서 밝혔듯이 모두 9개 범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이 글에서는 논문의 제한된 분량 등으로 인해 9개 범주의 관련 어휘를 다 다루지 못하고, ‘집 명칭, 내부 공간, 외부 공간, 건축 행위, 민속 관련’ 등 다섯 개 범주의 조사 어휘에 국한하여 어휘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주석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 등 국어사전과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하 제주어사전) 등 방언사전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필요한 경우는 형태소 분석도 곁들였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어휘 가운데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 어휘도 있고, 이미 보고된 어휘 가운데 주석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때는 주석을 보완하거나 바로잡았다. 논의 어휘들은 대부분 용례를 밝혀 어휘가 지닌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였다. 민속적 요소를 지닌 어휘는 그 특징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제주 주거 문화를 한층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집 명칭

제주의 집은 ‘초집, 지에집, 흑집, 돌집’ 등으로 재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초집’은 새나 짚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인 집을 말하고, ‘지에집’은 ‘지에’ 즉 ‘기와’로 지붕을 덮어서 지은 집이다. ‘흑집’은 벽

체를 흙으로 지은 집, ‘돌집’은 벽체를 돌로 쌓아서 지은 집이다. 슬레이트를 이용하여 지으면 ‘슬레이트집’이다. 지붕이 없는 ‘슬래브집’도 있고, 고층아파트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의 전통 가옥은 ‘초집’이다. ‘초집’의 지붕은 육지에서 짙이나 갈대로 이는 것과 달리 제주에서는 ‘새’라 불리는 띠를 이용하여 이었다. ‘초[草]+집’ 구성의 ‘초집’은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는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고, 『우리말큰사전』(이하 『우리』)과 『금성국어대사전』(이하 『금성』)에 ‘함경북도의 방언’으로 올라 있다. ‘초집’은 제주에서 ‘초가’를 이르는 말인데, 요즘은 ‘초가집’을 더 많이 쓰고 있다.

- (1) ㄱ. 초집허젠 허민 돌집이주게.(초집하려고 하면 돌집이지.) (이○생)
 ㄴ. 모두가 초가를 걷어치우고 돌집을 짓고 사는 날을 꿈꾸어 본다.
 『이양하, 이양하수필선』(『표준』)

예문 ‘(1) ㄱ’의 “초집허젠 허민 돌집이주게.”에서 확인되듯이, 제주 지역의 ‘초집’은 대부분 ‘돌’로 지은 후에 흙을 발라 마무리한 ‘돌집’이다. 여기에서의 ‘돌집’은 ‘(1) ㄴ’의 『표준』의 ‘돌로 지은 집’이라는 주석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표준』의 ‘돌집’은 ‘초가를 걷어치우고 새롭게 돌로만 지은 집’으로, 제주도의 ‘돌로 벽을 쌓은 후 지붕을 띠로 인 초가’와는 다르다.

3.1.1. 규모에 따른 집 이름

규모에 따른 집 명칭으로는 ‘이간집, 삼간집, 스간집’이 있다. ‘이간집’은 칸이 둘인 집을 말하고, ‘삼간집’은 세 칸, ‘스간집’은 네 칸으로 된 집이다. ‘스간’은 ‘사칸’의 방언형이다.

- (2) ㄱ. 사칸집은 네 칸을 말허는 거고, 삼칸은 세 칸을 말허는 거고,

이칸은 두 칸을 말하는 거라.(사간집은 네 칸을 말하고 것이고, 삼칸은 세 칸을 말하는 것이고, 이칸은 두 칸을 말하는 거야.)
<송○원>

- ㄴ. 초집은 이간집 삼간집 아니고는 집이 있어?(초집은 이간집 삼간집 아니고는 집이 있어?)<송○원>
ㄷ. 이 삼간집을 짓젠 허면은 목수허고 인력이 백이십 명 들어.(이 삼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목수하고 인력이 백이십 명 들어.)<송○원>

예문 ‘(2) ㄴ’의 ‘이간집’과 ‘삼간집’은 ‘이간(二間)+집’, ‘삼간(三間)+집’ 구성이다. ‘스간집’은 ‘스간(四間)+집’ 구성으로, 여기에서 ‘간’은 한자어 ‘間’이다. 『표준』 등 국어사전에는 ‘삼간집’만 표제어로 올라 있고, ‘이간집’과 ‘스간집’(사간집)은 올라 있지 않다. 예문 ‘(2) ㄴ, ㄷ’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간집’을 지을 때는 목수를 포함하여 120명 정도의 인력이 든다고 한다.

3.1.2. 위치에 따른 집 이름

위치에 따른 집 이름으로는 ‘안거리, 밧거리, 모커리(몽커리)’가 있다. ‘안거리’는 ‘(한집에 안과 밖의 두 채 이상의 집이 있을 때) 안쪽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표준어 ‘안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밧거리’는 표준어 ‘바깥채’의 방언형이며, ‘모커리(몽커리)’는 안거리 곁에 지은 집으로, 표준어 ‘곁채’에 대응한다. ‘모커리’는 방향에 따라 동쪽에 위치하면 ‘동모커리’, 서쪽에 위치하면 ‘서모커리’라고 한다. ‘모커리’는 ‘모ㅎ[方]+거리’ 구성으로, ‘거리’는 집채의 수효를 셀 때는 단위명사로도 쓰인다.

- (3) 대개 서모커리를 부역을 해요. 서모커리는 쉼막을 아녀거든. 쉼가 드나드는 데가 동모커리가 가까우니까.(대개 서쪽 곁채를 부역을 해요. 서쪽 곁채는 외양간을 앓거든. 소가 드나드는 데가, 동쪽 곁채가

가까우니까.)<송○원>

3.1.3. 용도에 따른 집 이름

용도에 따른 집 명칭으로는 ‘이문간, 도새기집/돛집’과 쉼막/소막, 밀막, 불치막’이 있다.

‘이문간’은 오늘날 대문 역할을 하는 ‘이문’이 달려 있는 집체다. 보통 삼간으로 만들어 가운데를 터서 ‘이문’을 다는데, ‘이문’ 양쪽에 헛간이나 외양간 등을 배치한다. 고평오 고택의 경우는 ‘이문간’ 양쪽에 헛간을 만들었고, 한봉일 고택은 ‘榼막(외양간)’으로 이용했다. ‘이문’이 없는 집은 ‘올레(오래)’ 끝 양쪽 돌담에 붙여서 ‘정주석’을 세운 후 그 사이로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을 걸치기도 하였다.

‘도새기집’은 돼지가 사는 집으로, 달리 ‘돛집’이라고 한다. ‘돼지우리’인 ‘돛통’ 한 쪽에 집처럼 지붕을 덮어 만들었다. ‘도새기집’은 「표준」 등의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어휘다. 보통 ‘도새기집’은 간방(艮方)에 설치한다.

‘榼막’은 ‘소오양간, 쉼왕, 소막’ 등으로 불리는데, 표준어 ‘외양간’을 말한다. ‘밀막’은 표준어 ‘마구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榼막’이나 ‘밀막’은 ‘밭거리’나 ‘모커리’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고, ‘이문간’ 한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 (3)에서 확인되듯이 ‘榼막’은 대개 소 출입이 쉬운 ‘올레’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불치막’은 ‘불치+ㅅ+막’ 구성으로, ‘불치’를 쌓아두는 공간이다. ‘불치’는 지역에 따라서는 ‘불경, 불채’라고도 하는데, ‘재[灰]’의 방언형이다.

3.2. 내부 공간

제주의 민가 대부분은 ‘삼간집’으로 지었다. 고평오 고택의 ‘안거리

(안채)’를 예로 들어 제주의 ‘삼간집’의 내부 공간 관련 어휘를 살펴 보려고 한다.

3.2.1. 구들

‘구들’은 표준어 ‘방’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표준』 등의 사전의 ‘구들’은 ‘고래를 켜고 구들장을 덮어 흙을 발라서 방바닥을 만들고 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구조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제주에서의 ‘구들’은 표준어 ‘방’의 의미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방을 땔 수 있도록 덮는 돌은 ‘구들돌’인데, 표준어 ‘구들장’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제주의 집은 굴뚝이 없는 것도 한 특징이다.

- (4) ㄱ. 이 구들 허당 나머지는 시렁, 시렁을 만들었주께. 큰구들, 작은 구들 방마다 다 있어.(이 구들 하다가 나머지는 벽장, 벽장을 만들었지. 큰방, 작은방 방마다 다 있어.)<송○원>
 ㄴ. 작은구들새끼³⁾ 혼자 자는 거. 틀림없이 장남 살아난 거 닮아.(작은방 혼자 자는 거. 틀림없이 장정 살았던 것 같아.)<송○원>

‘큰구들’은 큰방을 말하고, ‘작은구들’은 작은방을 가리킨다. 아주 작은 방은 ‘작은구들새끼’라고 하였다.

3.2.2. 삼방

‘삼방’은 표준어 ‘대청마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삼방’에 마루를 붙여서 ‘삼방마리’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상방’ 또는 ‘마리(마루)’라고도 한다. ‘삼방’은 『표준』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어휘다. 『표준』의 ‘상방’은 ‘①한 집에서 주인이 거처하는 방. ②예전에,

3) 이 ‘작은구들새끼’는 성읍1리 ‘대장간집’ 바깥채에 딸려 있는 아주 작은방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보자 송○원은 ‘아주 작은 창굴’도 ‘창굴새끼’라고 표현하였다.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의 의미로 쓰였다. '대청' 의미로의 '삼방'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 (5) ㄱ. 제스 때에 여기는 문제라는 게 있어이. 제사 지내기 전에 삼방 마루에서 이 대문을 향해서 그 때 하나를 놓곡.(제사 때에 여기는 '문제(門祭)'라는 게 있어. 제사지내기 전에 마루에서 이 마루문 향해서 그 때 하나를 놓고.)<송○원>
- ㄴ. 옛날에 우리 아지망이 저 부엌으로 들어강 삼방에 강 사근에 아버지 나 왔수다 훔 기억이 있져.(옛날에 우리 아주머니가 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루에 가서 서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한 기억이 있지.)<김○자>

예문 '(5) ㄴ'을 보면, 여성들은 마당에서 마루로 통하는 '대문'을 이용하지 않고, 부엌의 샛문을 이용하여 마루를 드나들었다. 여성들은 마루의 '대문'은 남성들만 드나드는 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2.3. 고팡

'고팡'은 세간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 두는 곳으로, 표준어 '고방(庫房)'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고팡'은 '고(庫)+ㅎ+방(房)' 구성으로 'ㅎ'이 첨가된 형태다. '고방'은 '팡'의 원말로, 보통 주인이 기거하는 안방 옆에 설치하였다.

- (6) ㄱ. 고팡은 이디 들어가민 지금은 방인디 저게 싹둑. 곡식 놓는 게 옛날은 대개 향.(고방은 여기 들어가면 지금은 방인데 저게 싹둑. 곡식 놓는 게 옛날은 대개 독.)<송○원>
- ㄴ. 이게 구들팡 고팡 갈르는 간가름도리디.(이게 방과 고팡 가르는 '간가름도리'인데.)<송○원>
- ㄷ. 이 조끔 여유가 있는 디는 부엌을 따로 한 디는 부엌에 고팡을 따로 댜들주. 부엌에 부짱. 여자덜 쫄 거리레 댜임 쉽게게.(이 조끔 여유가 있는 데는 부엌을 따로 한 데는 부엌에 고팡을 따로 만드지. 부엌에 붙여서. 여자들 싹 뜨러 다니기 쉽게.)<송○원>

예문 (6)에서 확인되듯이, ‘고팡’은 곡식 등을 담은 항아리 따위를 보관하는 장소로, 안주인이 주로 드나드는 공간이다. ‘(6) ㄴ’을 보면, ‘구들’과 ‘고팡’을 나눌 때 사용하는 도리를 성읍1리에서는 ‘간가름도리’라고 한다. ‘간가름도리’는 ‘간[間]+가르[分]+-口#도리[桁]’로 분석할 수 있다. 집안에 따라서는 부엌 옆에 ‘고팡’을 설치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고팡’ 외에도 ‘괘팡’, ‘안방’, ‘양팡’ 형으로도 나타난다.

3.2.4. 뗏마리

‘뗏마리’는 ‘뒷간에 놓은 마루’다. 표준어 ‘뒤틀마루’에 해당하는 방언형으로, 달리 ‘난간마리’ 또는 줄여서 ‘난간’이라고도 한다. 여기에서 ‘난간’은 『표준』의 ‘층계, 다리, 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이라는 의미의 ‘난간(欄干)’과는 다른 의미다.

- (7) ㄱ. 뗏마리. 난간마리엔도 허곡.(뒤틀마루. ‘난간마리’라고도 하고.)
 ○생)
 ㄴ. 이건 무똥, 뗏마리엔도 허고 난간엔도 허곡 허는다.(이건 ‘무똥’, ‘뗏마리’라고도 하고 ‘난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송○원)

예문 ‘(5) ㄱ’의 ‘삼방마리’에서 알 수 있듯이, ‘난간’에 ‘마리’가 붙은 것으로 보아, ‘난간’은 마루를 깔아 만든 ‘뗏마리’의 다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3.2.5. 정지

‘정지’는 표준어 ‘부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지역에 따라서 ‘정제’형으로도 나타난다. 부엌은 흙바닥 그대로 활용하여 만드는데 한쪽에 ‘숫덕(붓돌)’⁴⁾을 세워 솔을 걸었다.

- (8) ㄱ. 성읍리서는 한라산을 향해서 솥을 안 앓져. 옛날부터 서북향을 향해서는 저 솥을 안 앓진다 해서 우리는 북향이라.(성읍리에서는 한라산을 향해서 솥을 안 앓혀. 옛날부터 서북향을 향해서는 저 솥을 안 앓힌다 해서 우리는 북향이야.)<송○원>
- ㄴ. 성읍리는 부섭 잇는 디 멧 개 안 돼여. 잘사는 집은 마루에 요렇게 부섭을 백여서 이디 불살랑 겨울에도 이디 앓앙 명석도 즐고 맥도 즐곡 불초기 위해서 부섭을 박아놔여. 이칸집은 정지에 헛주게.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헛 몰리곡. 벧 안 나민 어뎡 말이라.(성읍리는 봉당 잇는 데 멧 개 안 되어. 잘사는 집은 마루에 요렇게 봉당을 박아서 여기 불살라 겨울에도 여기 앓아서 명석도 견고 먹서리도 견고 불찌기 위해서 봉당을 박았어. 이칸집은 부엌에 헛지. 장마에 보리도 고리에 해서 말리고. 벧 안 나민 어뎡게 말이야.)<송○원>

예문 ‘(8) ㄱ’을 보면, 성읍1리에서는 ‘솥덕’을 서북쪽인 한라산 방향으로는 앓히지 앓았다. 이는 제주 사람들 내면세계에 한라산을 신성시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지’ 한쪽에는 ‘구들’에 불땀 수 있도록 ‘굴뚝’을 설치하거나 보온 장치인 ‘부섭’을 박아놓는 경우도 있다. ‘부섭’은 돌을 네모나게 파서 만든 돌화로로, 마루 한쪽에 ‘부섭’을 박아 놓기도 한다. 마루널 사이에 ‘부섭’을 끼워 넣는 행위를 ‘부섭 박다’라고 하고, 이 ‘부섭’은 제사 때 ‘산적’을 굽는 화로 구실도 하였다.

예문 ‘(8) 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섭’은 추운 겨울에 불을 때는 난방기구로 사용되었다. 그 곁에서 사람들은 명석도 견고 먹도 곁었다. 장마 때는 고리를 ‘부섭’ 위에 매달아 그 안에 보리를 넣어 말리는 용도로도 활용하였다.

4) ‘솥덕’의 ‘솥’은 ‘술(鼎)’의 방언형이다. [소시], [소순], [손퇴], [소술], [소시난], [손만] 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솥’을 기저형으로 하였다.

3.2.6. 굴뚝

‘굴뚝’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일컫는다. 『표준』에는 ‘굴뚝’을 ‘굴뚝’의 방언으로 잘못 주석하고 있다.

- (9) ㄱ. 이것이 백이면 이 돌담백 안으로 시령을 만들었잖아이. 이 사이가 굴뚝이 되는 거라. 방마다 그렇게 해주.(이것이 백이면 이 돌담백 안으로 벽장을 만들었잖아. 이 사이가 ‘굴뚝’이 되는 거야. 방마다 그렇게 했지.)<송○원>
 ㄴ. 굴뚝 짓는 것도 근은대엔 굴뚝근은대 날레 짓는 근은대.(‘굴뚝’ 때는 것도 ‘근은대’라고 했지. ‘굴뚝근은대’ ‘날레’ 짓는 고무래.)<이○생>

예문 (9)에서 확인되듯이, ‘굴뚝’은 방의 ‘시령(벽장)’ 밑으로 구들장을 놓아 불을 때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굴뚝’을 땔 때는 ‘(굴뚝)근은대’를 이용한다. ‘근은대’는 널빤지에 기다란 나무 손잡이를 달아 만드는데, 땔감을 집어넣거나 재를 꺼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근은대’는 ‘근+은+대’ 구성으로, 여기에서 ‘근다’는 표준어 ‘굽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3.2.7. 시령

‘시령’은 표준어 ‘벽장’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표준』의 ‘시령’의 의미와는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 ‘백장’이라고도 한다. 『표준』의 ‘시령’은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이다. ‘백장’의 주석도 『표준』의 ‘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게 만든 장(櫥)’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제주의 ‘벽장’은 문을 달지 않고, 예문 ‘(9) ㄱ’에서 알 수 있듯이 “돌담백 안으로 시령을 만들었”다.

3.2.8. 장궤

‘장궤(藏櫃)’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장이나 궤처럼 꾸민 불박이 공간이다. 보통 ‘삼방’ 뒷문 양쪽 벽이나 뒷마루 벽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 (10) 장궤 잘사는 집만 멘들앗주. 이 못사는 사름덜은 그거 헐 여지가 었어. 두 군데 양쪽 헛주게. 흥쪽에는 궤상을 농곡. 흥쪽엔 궤그릇 농곡.(‘장궤’ 잘사는 집에만 만들었지. 이 못사는 사람들은 그거 할 여지가 없어. 두 군데 양쪽 했지. 한쪽에는 제상을 넣고, 한쪽에는 제기 넣고.)<송○원>

고평오 고택의 ‘안거리’에는 ‘삼방뒷문’ 양쪽으로 3단짜리 ‘장궤’ 두 개, ‘뿔마리’ 오른쪽에 하나 하여 모두 세 개가 설치되어 있다. ‘삼방마리’의 ‘장궤’에는 보통 ‘궤그릇(제기)’ 등을 보관하였고, ‘뿔마리’의 ‘장궤’에는 호미 등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나 연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장궤’는 『표준』 등 국어사전과 『제주어사전』 등 방언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3.3. 외부 공간

집은 울타리 안의 공간을 말한다. 울안에는 보통 ‘안거리’, ‘뿔거리’, ‘모커리’ 등의 집채와 부속 공간인 ‘마당’, ‘무똥’, ‘장황뒤’, ‘돛통’, ‘우연’, ‘올레’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외부 공간에는 ‘풍채’, ‘물팡들’, ‘춤’과 ‘춤 받는 항’, ‘정낭’ 등의 부속물도 설치되어 있다.

3.3.1. 마당

‘마당’은 집 앞에 평평하게 닦아 놓은 땅이다. 집에서 바깥으로 나

들 때, 곡식을 타작하거나 곡식을 말릴 때 등 요긴하여 활용되는 공간이다.

(11) 마당에서 팡 흙질하는 때문에 마당이 아파.(마당에서 파서 흙질하는 때문에 마당이 얇아.)(송○원)

예문 (11)에서 보는 것처럼, 제주의 주거 환경에서 마당이 얇은 것은 초집의 벽체를 바르는 흙을 마당의 흙을 파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3.2. 무똥

‘무똥’은 초가의 대문이나 창문 앞을 가리키는 말이다.

(12) ㄱ. 무똥계. 대문 바꼈다.(‘무똥’. 마루문 밖에.)<김○자>
ㄴ. 무똥에 문이 창문.(‘무똥’의 문이 창문.)<이○생>

‘무똥’은 달리 ‘문두’, ‘문등’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아이들이 잔칫집으로 몰려가 신부상에 올라온 ‘곤밥(흰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서성였던 창문 앞이 바로 ‘무똥’이다.

3.3.3. 장황뒤

‘장황뒤/장항뒤’는 표준어 ‘장독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집 뒤나 집 옆에 설치한다. 한봉일 고택의 경우는 마당 한쪽에 ‘장황뒤’를 설치하였다. ‘장황뒤’는 ‘장황두에’, ‘장팡뒤’형으로도 실현된다.

(13) 장황뒤는 부엌등어리에 많이 해여. 왜냐면 장 거리레 다니기 쉽게 부엌등어리에 많이 만들앗어.(장독대는 부엌 뒤에 많이 해. 왜냐면

장 뜨러 다니기 쉽게 부엌 뒤에 많이 만들었어.)<송○원>

예문 (13)을 보면, ‘장황뒤’는 부엌일을 많이 하는 여성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부엌 뒤쪽에 설치하였다. ‘장황뒤’는 ‘장황+뒤’ 구성으로, ‘뒤(테)’는 장독을 놓는 공간의 의미로 쓰였다. ‘뒤’는 공간의 의미인 ‘디(테)’의 이형태다.

3.3.4. 우연/우영, 우연팻/우영팻

‘우연’은 마당 한쪽의 빈 공간을 말한다. ‘우연’은 지역에 따라서 ‘우영, 위연’, ‘우연팻’은 ‘우영팻’이라고도 한다. ‘우연’은 문헌 어휘 ‘위안’에서 온 것이다.

(14) ㄱ. 출놀은 우연. 췌가 나가분 다음에 승키 갈 거난 겨울엔 필요가 엇지. 췌명 뒤편은 췌가 나가. 저 입동ㄷ진 안 들어와.(꿀가리는 터알. 소가 나가버린 다음에 푸성귀 갈 거니 겨울엔 필요가 없지. 췌명 되면 소가 나가. 저 입동까지는 안 들어와.)<송○원>

ㄴ. 출놀은 우연에 췌막 가까운 디. 부제침의나 우연 출령 놀 놀주. (꿀가리는 터알에 외양간 가까운 데. 부잣집이나 터알 차려서 가리 가리지.)<송○원>

ㄷ. 저디는 놀 누는 디 보니까 돌맹이 해서 이렇게 싸서. 돌맹이 이렇게 난에 놀 누는 디 만든 디가 잇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놀어도 습기 차지 말앙 췌지 말렌 현 이윤디.(저기는 가리 가리는 데 보니까 돌맹이 해서 이렇게 쌓아. 돌맹이 이렇게 놔서 가리 가리는 데 만든 데가 잇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가리어도 습기 차지 말아서 췌지 말라고 한 이유인데.)<송○원>

예문 ‘(14) ㄱ, ㄴ’을 보면, ‘우연’은 성읍1리에서는 ‘출놀(꿀가리)’ 등을 쌓아두는 공간이다. 성읍1리에서 ‘우연’은 ‘출놀’을 가리지 않을 때 채소 등을 가는 ‘우연팻’으로 활용하였다. ‘우연’도 아무나 만들지 못하였다. 예문 ‘(14) ㄷ’의 “돌맹이 해서 이렇게 싸서 돌맹이 이렇게

낱에 놀 누는 디 만든 디가 잇더라고”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꿀 따위를 가리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돌맹이 이렇게 낱에 놀 누는 디 만든 디”는 ‘놀굽’이라고 하고, 그러한 공간을 ‘놀왓’이라고 한다. ‘놀’은 표준어 ‘가리’, ‘놀다’는 ‘가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놀’은 문헌어 ‘누리’, ‘놀다’는 문헌어 ‘누리다’에서 온 말이다. ‘놀굽’은 ‘놀+굽’의 구성으로, ‘굽’은 ‘(가리의) 밑’ 또는 ‘바닥’을 말한다. ‘우연팻’은 ‘우연+팻’, ‘놀왓’은 ‘놀+왓’ 구성으로, 여기에서 ‘팻’은 ‘ㅎ’이 첨가된 형태다. ‘왓’은 ‘일정한 공간’의 의미인 표준어 ‘밭’의 대응어다.

3.3.5. 통시/돛통/돛집

‘통시’는 변수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지역에 따라서 ‘통세’, ‘통지’라고도 한다. ‘돛통’은 ‘돼지우리’, ‘돛집’은 돼지가 살 수 있게 지붕을 이어 만든 공간이다. 여기에서 ‘돛’은 『동문유해』의 “猪 돛”, 『한청문감』의 “猪 도, 豚 불친 암돛”에서도 확인된다. ‘통시’와 ‘돛통’은 변수와 돼지우리를 포함하는 용어로도 쓰인다.

- (15) 도새기 방위 방 질랏주. 보통은 곤방이라고 해서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하고 이 남산망 사이를 곤방이라고 허여. 이쪽 방에 돛통을 멘들민 도새기 잘 큰덴 허영 경해낫주.(돼지 방위 봐서 키웠었지. 보통은 간방이라고 해서 성읍리는 이 저 영주산하고 이 남산망 사이를 간방이라고 해. 이쪽 방에 돼지우리를 만들면 돼지 잘 자란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지.)<송○원>

예문 (15)를 보면, ‘돛통’은 ‘곤방’ 즉 간방(良方)에 설치했다. 성읍리 주민들은 ‘곤방’에 ‘돛통’을 만들면 돼지가 잘 자란다고 관념하였다. ‘곤방’은 방위를 팔방으로 나눌 때 서북향 쪽이다.

3.3.6. 올레

‘올레’는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골목이다.

- (16) 먼올렌 먼 디난 먼올레 ㅂ든 딘 ㅂ든올레. 도로가 멀고 ㅂ든 차이라.(‘먼올레’는 먼 데니까 ‘먼올레’ 받은 덴 ‘ㅂ든올레’. 도로가 멀고 받은 차이야.)<이○생>

예문 (16)을 보면, 큰길가가 멀리 있는 ‘올레’는 ‘먼올레’, 가까이 있으면 ‘ㅂ딘올레’다. ‘먼올레’를 지역에 따라서는 ‘진올레’라고도 한다. ‘ㅂ딘올레’의 ‘ㅂ딘’은 ‘ㅂ디다’의 어간 ‘ㅂ디(近)-’에 관형형 어미 ‘-ㄴ’이 결합한 형태로, 표준어 ‘가까운’의 의미다. 『제주어사전』에는 ‘먼올레’를 ‘큰길 가까이에 있는 골목길’이라고 주석하고 있지만 ‘큰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의 의미로 수정되어야 한다. 큰길가에 가까이에 있는 ‘ㅂ든올레’는 사전의 표제어로 올라있지 않다.

3.3.7. 풍체

‘풍체’는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물건’이다. 표준어 ‘차양(遮陽)’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17) 집 앞에 돌리는 게 풍첸디 보통 삼칸집인 두 개 사칸집인 세 개를 헤여.(집 앞에 달리는 게 차양인데 보통 삼칸집에는 두 개, 사칸집에는 세 개를 해.)<송○원>

예문 (17)을 보면, ‘풍체’는 삼칸집의 경우에는 두 개, 사칸집의 경우는 세 개를 세운다. 고평오 고택 앞에는 두 개의 ‘풍체’가 세워 있다. ‘풍체’를 받치는 도구를 ‘풍체작대기’ 또는 ‘풍체작쉬’라고 한다. ‘풍체’를 고정시켜주는 나무는 ‘풍체쌀’이라고 하는데, 대나무를 엮어

만든다. ‘풍체’의 사각형 돌레를 두른 나무는 ‘부출’이라고 한다.

3.3.8. 물팡돌/물팡

‘물팡돌’은 양쪽에 넓은 돌을 세우고 가운데 잔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넓직한 돌을 얹어서 설치한 대(臺)다. 달리 ‘물팡’이라고도 한다. ‘물팡돌’은 물동이인 ‘허벅’을 넣는 ‘물구덕’을 올려두는 장소로, 보통 ‘정짓문’ 밖 한쪽 벽에 설치한다.

- (18) ㄱ. 물팡돌. 허벅 넣은에 물구덕 팡 우의 좌근에 지는 거.(‘물팡돌’. 물동이 놔서 ‘물구덕’ 대 위에 놔서 지는 거.)<송○원>
 ㄴ. 물팡은 부엌 앞에 놓주. 부엌에서 쉼 가까운 디. 그 집의 식구에 따라 물허벅이 만약 두 사람이 질어올 수 잇으면 물팡을 크게 만들곡 경 아녀민 물구덕 하나 놓을 정도로.(‘물팡’은 부엌 앞에 놓지. 부엌에서 쉼 가까운 데. 그 집의 식구에 따라 물동이 만약 두 사람이 질어 올 수 잇으면 ‘물팡’을 크게 만들고 그 령지 않으면 ‘물구덕’ 하나 놓을 정도로.)<송○원>

예문 (18)에서 보듯이, ‘물팡돌’은 물을 길러 다닐 때 사용하는 ‘허벅’을 담은 바구니인 ‘물구덕’을 지고 부릴 때 사용하는 대다. ‘팡’은 돌로 만든 대로, ‘쉽팡’, ‘짐팡’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쉽팡’은 쉴 수 있도록 돌로 쌓아놓은 대, ‘짐팡’은 짐을 지고 부릴 때 사용하는 대다.

3.3.9. ‘춤’과 ‘춤 받는 항’

‘춤’은 비올 때 물을 받기 위해서 나무 기둥 따위에 설치한 띠를 땅아서 만든 도구다.

- (19) ㄱ. 옛날 물이 어려우난 물 받았 쓰젠 춤 헛주.(옛날 물이 어려우니

물 받아서 쓰려고 ‘츄’ 했지.)<송○원>

- ㄴ. 츄 받은 물은 보통 먹을 용으로 안하고, 그자 밭도 셋곡 낮도 셋곡 모옥이나 허주. 츄은 새로 느랍지 예프는 식으로 멘들아. (‘츄’ 받은 물은 보통 먹을 용으로 안하고, 그저 밭도 셋고 낮도 셋고 모옥이나 하지. ‘츄’은 띠로 이영 위는 식으로 만들어.<송○원>
- ㄷ. 츄 매는 낭으로 제일 좋은 건 돛박낭. 먹는 것도 좋곡. 츄물 받는 향은 츄 받는 향.(‘츄’ 매는 나무로 제일 좋은 건 동백나무. 먹는 것도 좋고. ‘츄물’ 받는 향아리는 ‘츄’ 받는 향아리.)<이○생>

‘츄’ 밑에는 향아리를 받쳐 두는데 이를 ‘츄 받는 향’ 또는 ‘츄향’이라고 한다. ‘츄’은 보통 집 뒤의 동백나무를 이용하여 매는 경우가 많았다. ‘동백나무’는 나무 재질이 반드러워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도 깨끗하다. ‘츄’을 이용하여 받은 물은 ‘츄물’이다.

3.3.10. 팡돌, 잇돌, 순전

성읍1리의 전통 가옥에는 마당에 ‘돌’을 설치해 놓은 곳이 많았다. ‘팡돌’, ‘잇돌’, ‘순전’ 등 용도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다.

- (20) ㄱ. 신발 벗는 디가 난간 아래주게. 잘사는 집은 돌로 이렇게 헤근에 잇돌.(신발 벗는 데가 난간 아래지. 잘사는 집은 돌로 이렇게 해서 댓돌.)<이○생>
- ㄴ. 지슬물 떨어지는 디 파지지 아녀게 지슬 갈아 올린덴 허영 흑 올령 양에 7뜯 거 싱그민 뿌리가 든드헤 농난 파지질 잘 아녀 마썸. 지슬 갈아 올린 디 돌을 박은 걸 순전 박넨 험니다.(기스락물 떨어지는 데 페이지 얇게 기스락 갈아 올린다고 해서 흑 올려 양하 같은 거 심으면 뿌리가 단단해 놓으니까 파지지 않아요. 기스락 갈아 올린 데 돌을 박은 걸 ‘순전 박는다’ 합니다.)<강○용>
- ㄷ. 우리 옛날은 높은 집은 앞의서부터. 계난 젤 베겏되 잇는 건 순전이고, 요 집가지에 잇는 거는 잇돌이고, 이 올라가는 건 팡돌

이엔 헤낫는다.(우리 옛날은 높은 집은 앞에서부터. 그러니 젤 밖에 있는 건 ‘순전’이고, 요 처마에 있는 거는 ‘잇돌’이고, 이 올라가는 건 댓돌이라고 했었는데.)<송○원>

예문 (20)을 보면, ‘팡돌’은 마당에서 뒷마루로 올라올 때 신발을 벗어 놓기 위해서 뒷마루 앞에 쌓아 놓은 돌로, 표준어 ‘댓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잇돌’은 비 올 때 집안으로 들어올 때, 빗물에 젖지 않게 딛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든 돌다리다. 표준어 ‘섬돌’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순전’은 처마 밑에 빗물을 흘러내려 흙이 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박은 돌이다. 이때 돌을 박는 것을 ‘순전 박다’라고 한다. ‘순전’을 박은 후 처마 기스락의 흙을 올려주는 것을 ‘지슬(기스락) 갈아 올린다’고 한다. 그 ‘지슬’에는 양하를 심어서 기스락물이 떨어져 땅이 파이는 것을 방지하였다.

3.3.11. 정낭과 정주석

‘정낭’은 대문 대신에 ‘올레’ 끝에 설치한 나무막대다. ‘정주석’은 ‘정낭’을 걸치게 만든 구멍을 뚫어서 만든 돌로 된 대다. 나무로 만들면 ‘정주목’이라고 하였다. ‘정낭’은 지역에 따라서 ‘징낭, 정술, 징, 정’ 따위로 불린다. ‘정낭’은 ‘건물의 정면에 있는 주가 되는 출입문’인 정문(正門) 구실을 하는 구조물이다. ‘정낭’은 문 대신에 나무를 걸치기 때문에 만들어진 어휘다. ‘징낭’은 ‘정낭’, ‘정술’은 ‘정살’의 변이형이다.

3.4. 건축 행위 관련 어휘

여기에서 건축 행위와 관련한 어휘는 석공, 목수, 잡부와 관련해서 파생된 어휘를 말한다. 석공은 집을 지을 때 집 외벽과 내벽의 벽을

쌓는 사람이고, 목수는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잡부들은 흙질이나 지붕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잡부’는 제보자 송○원이 사용한 용어로, 목수와 석공을 제외하고 집을 지을 때 동원되는 인력을 말한다.

3.4.1. (혹) 꾸다

‘(혹) 꾸다’는 ‘흙에 물을 넣어 잘 이기다’는 뜻의 방언형이다.

(21) ㄱ. 석공은 담을 다고, 목수는 집을 짓고, 나머지 잡부들은 흙질을 하여. 혹 꾸어다가 담에도 브르고이 튼기도 허고.(석공은 담을 쌓고, 목수는 집을 짓고, 나머지 잡부들은 흙질을 해. 흙 이기어 담에도 바르고 외도 하고.)<송○원>

ㄴ. 여자들 혹 꾸젠 허민 허벅 가정왕 물 질어주곡 허주. 흙 펼 땐 그신새를 노나 모밀쩍을 노나. 그거 엇이면은 혹이 이렇게 수세 안 논 거는 시쳐정 엇어불어. 수세 논 거는 단단허주.(여자들 흙 이기려고 하면 물동이 가지고 와서 물 길어 주고 하지. 흙 이길 땐 썩은새를 놓으나 메밀짚을 놓으나. 그거 없으면 흙이 이렇게 ‘수세’ 안 놓은 거는 씻어져서 없어져. ‘수세’ 놓은 거는 단단하지.)<송○원>

예문 ‘(21) ㄴ’을 보면, ‘흙질’을 할 때는 동네 여성들이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주었다. 또 흙을 이길 때는 메밀대 등을 썰어 넣는데, 그렇게 넣은 메밀대를 ‘수세’ 또는 ‘수세미’라고 한다. ‘수세’를 넣어야 비 올 때 바람벽의 흙이 씻겨 나가지 않는다.

3.4.2. (혹) 불리다

‘(혹) 불리다’는 흙에 ‘수세’를 넣어서 발로 밟으며 이긴다는 뜻이다.

- (22) ㄱ. 흑 불리는 거 초벌 불령 쉼 내놓아똥 똥쌍 두불 또 불린다고. 풀풀허게 잘 부뜰 때까지 불려사.(흙 밟는 거 초벌 밟고 소 내어놓아서 뒤집어 두벌 또 밟는다고. 끈적끈적하게 잘 붙을 때까지 밟아야.)<이○쟁>
- ㄴ. 진토긋이엔. 흑긋이엔. 물 비왕 흙 지우고 자꾸 흑 이렇게 서끄곡 서끄곡 허주게. 경해낭 쉼로 불리주.(‘진토긋’이라고. ‘흑긋’이라고. 물 붓고 흙 지게 하고 자꾸 흑 이렇게 섞고 섞고 하지. 그렇게 하고 나서 소로 밟지.)<송○원>

예문 (22)를 보면, ‘(흑) 불릴’ 때는 소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들어가 밟는다. 흙을 뒤집고 뒤집으면서 풀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흙) 불리다’라고 말한다. ‘불리다’는 표준어 ‘밟다’의 방언형이다.

2.4.3. 흑질

이 어휘는 잘 이겨진 흙을 이용하여 집 벽체에 바르는 행위를 말한다. 표준어 ‘흙질’에 대응한다. ‘흑질’은 ‘흑(흙)+질’ 구성으로, 이 어휘는 『언해 태산집요』(1608)에 처음 나타난다.

- (23) ㄱ. 옛날은 흑질할 때 남자덜은 브르곡 여자덜은 접아주곡.(옛날은 흙질할 때 남자들은 바르고 여자들은 집어주고.)<송○원>
- ㄴ. 놈이 집 짓게 똤민 목시덜토 도와주곡 돌일허는 것도 도와주곡 흑질허민 흑질 도와주곡 집 일민 동네에서 다 도와주곡.(남의 집 짓게 되면 목수들도 도와주고 석역을 하는 것도 도와주고 흙질 하면 흙질 도와주고 집 이면 동네에서 다 도와주고.)<송○원>
- ㄷ. 쉼 못 견딘 일이 흑질이주게. 옛날엔 여자들이 허벽으로 물을 날라와야. 물 질어올 디가 멀어놓니까 삼스십 명 질어와 봐도 한번 비우민 뭘 없어.(쉼 못 견딘 일이 흙질이지. 옛날엔 여자들이 물동이로 물을 날라 와야. 물 질어올 데가 머니 삼사십 명 질어와 봐도 한번 부으면 뭘 없어.)<송○원>

예문 (23)에서 알 수 있듯이, ‘흑질’은 집을 지을 때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다. ‘혹질’을 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을 길어다주고, ‘혹’을 날라주는 등 공동체로 일손을 거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벽에 흙을 바를 때는 동아리를 지어서 하는데, 여자들은 흙덩이를 집어 주고 남자들은 손으로 벽체에다 흙을 바르는 일을 하였다. ‘혹질’을 위해서 쌓아놓은 흙을 ‘혹굿’ 또는 ‘진토굿’이라고 하고, 흙을 벽에 바르는 행위를 ‘(혹) 불르다’라고 하였다.

3.4.4. (줄) 놓다, (줄) 비다

‘(줄) 놓다’는 ‘집줄’을 만들기 위하여 ‘각단’을 손으로 먹이는 일, 또는 줄을 꼬아서 만드는 일을 말한다. ‘각단’은 짧은 띠를 말하는데, 요즘은 ‘각단’ 대신에 ‘새’를 이용하여 집줄을 ‘놓는다’. ‘(줄) 놓다’는 말 대신에 ‘(줄) 비다’라고도 한다.

- (24) ㄱ. 각단이엔 해근에 줄. 재료는 새보다 짧고 부드러운 걸로 해근에 줄을 놓주께.(‘각단’이라 해서 줄. 재료는 띠보다 짧고 부드러운 걸로 해서 줄을 놓지요.)<강○용>
 ㄴ. 줄 비는 건 호랭이. 어울려주는 건 뒤치기.(줄 돌리는 건 ‘호랭이’. 어우르는 건 ‘뒤치기’.)<강○용>

예문 ‘(24) ㄴ’의 ‘(줄) 비다’는 ‘각단’을 꼬아서 ‘집줄’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줄은 ‘집줄’, ‘비다’는 표준어 ‘꼬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으로 문헌 어휘 ‘뵈다, 뵈다, 뵈이다’와 궤를 같이 한다.

‘줄을 빌’ 때는 ‘호랭이’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이 ‘호랭이’는 보통 손에 들어 사용하는데,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등에서는 긴 다리가 붙어 있는 ‘줄호랭이’(김순자 외, 2016:163)를 이용하기도 한다. ‘줄호랭이’는 다리를 땅에 댄 채 손으로 돌리면서 줄을 꼬는 도구다. ‘호랭이’는 ‘갈고리 모양의 나무를 왕대 마디 속에 집어넣어서 잘 들게 만드는 기구’로 지역에 따라서는 ‘호롱이, 휘롱이, 휘롱’ 등으로 부른다.

『표준』의 올림말에는 올라 있지 않다.

3.4.5 뒤치다

‘뒤치다’는 두 개의 줄을 하나로 꼬아줄 때 ‘뒤치기’라는 도구를 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25) 이젠 줄 놓는, 뒤치는 줄 감앙 혼 사름은 앓앙은에 이거 돌르고, 두 사름은 저디 양펜이 또 돌르곡, 혼 사름은 그걸 영영 꼬아져 가지. (이제는 줄 놓는, ‘뒤치는’ 줄 감아서 한 사름은 앓아서 이거 돌리고, 두 사름은 저기 양편에 또 돌리고, 한 사름은 그걸 이렇게 꼬아지게 가지.)(김순자, 2008:187)

이 ‘뒤치기’를 표선면 표선리에서는 ‘떡호랭이’라고 하였다. ‘뒤치기’는 꼬아 놓은 두 개의 줄을 어우러지게 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뒤치다’, ‘떡호랭이’, ‘뒤치기’는 모두 『표준』의 올림말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다.

3.4.6. (줄) 어울리다

‘(줄) 어울리다’는 꼬아 놓은 줄 두 개를 하나로 어우러지게 꼬면서 집줄을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26) 새 비여당 영 줄 놓앙. 줄 놓민 영영 그거 어울령 줄 멩글앙 이젠 그걸로 집 일어두곡.(띠 베어다가 이렇게 줄 놓아. 줄 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거 어우러지게 해서 줄 만들어서 이제는 그걸로 집 이 어두고.)(김순자, 2012:193)

줄을 ‘어울릴’ 때는 네 명의 일손이 필요하다. 한 명은 ‘뒤치기’를 돌리고, 두 명은 ‘호랭이’를 이용하여 줄을 계속 돌려준다. 나머지 한

명은 두 개의 줄을 한데 어우러지게 꼬아주는 역할을 한다. 줄을 어울릴 때는 두 손을 이용하거나 막대 따위의 도구를 이용한다. ‘줄 어울리는’ 것을 ‘줄 으끄다(위다)’라고도 한다.

3.4.7. (집) 일다/(지붕) 더끄다

‘(집) 일다’는 억새와 ‘새’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덮는다는 의미다. ‘일다’는 표준어 ‘이다’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27) ㄱ. 집은 쥐날에도 안 일곡, 잉일에도 안 일곡, 독날에도 안 일곡, 개날에도 안 일곡, 영 뺑 좋은 날 일곡.(집은 쥐날에도 안 이고, 인일에도 안 이고, 닭날에도 안 이고. 개날에도 안 이어. 이렇게 봐서 좋은 날 이어.)(김순자, 2012:194)

ㄴ. 새는 영허영 지붕 더끄는 거고, 각단은 줄 놓는 거.(띠는 이렇게 해서 지붕 덮는 거고, ‘각단’은 줄 놓는 거.)(김순자, 2008:187)

ㄷ. 집 일젠 허민 줄 때는 사름 두 개 허곡, 집 이는 사름 두 개 허곡, 너 사름은 들어사 허곡. 여젠 징심 출령 농곡 경허여.(집 이려고 하면 줄 때는 사람 두 개 하고. 집 이는 사람 두 개 하고 네 사람은 들어야 하고. 여자는 점심 차려서 놓고 그래.)(김순자, 2012:194)

ㄹ. 삼간집 일젠 허민 새가 이십 평 기준으로 한 백이십 단 들어. 진새 하나 더뜨면 썩른새는 두 번을 덮어줘. 경해야 길이가 ㄱ따.(삼간집 이려고 하면 띠가 이십 평 기준으로 한 백이십 단 들어. 긴 띠가 하나 덮으면 짧은 띠는 두 번을 덮어줘. 그래야 길이가 같아.)<송○원>

ㅁ. 우리가 어린 때 한 이십 대까지는 집 이는 것도 수눌음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집이 거 일민 내일은 저 집의 강 일어주고 이렇게 허면서 돌아가면서 했어. 집 이는 날은 특별하다고 해서 잘 허민 곤썰에다가 피썰 서끄곡 저 오토미생성, 그거 사당 식사 대접했주. 잘허민 술이영 담배도 얻어 피우곡.(우리가 어릴 때 한 이십 대까지는 집 이는 것도 품앗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집에 거 이면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서 했어. 집 이는 날은 특별하다고 해서 잘하면 흰쌀에다가

핍쌀 섞고 저 옥돔, 그거 사다가 식사 대접했지. 잘하면 술이랑 담배도 얻어 피우고.)<송○원>

예문 ‘(27) ㄱ’에서 보듯이, 지붕은 쥐날, 인(寅)날, 닭날, 개날은 피하고 좋은 날을 골라 이었다. 지붕 이는 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지붕 더끄다/더뜨다’ 라고도 하였다. 집을 일 때는 줄 때는 사람 두 명, 지붕 덮는 사람 두 명 등 네 명이 필요하다. 삼간집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붕을 이는 ‘새(띠)’는 120단 정도 필요하다. 길이가 긴 것은 한 번 덮으면 되지만 짧은 띠는 두 번 덮어서 길이를 맞춰주었다.

길이가 긴 띠를 ‘진새’라고 하고, 짧은 띠는 ‘쯔른새’라고 한다. 집을 일 때는 품앗이로 서로 도우면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지붕을 이는 집에서는 흰쌀에 핍쌀을 섞은 밥에다 ‘오토미(옥돔)’를 넣어서 국을 끓여 지붕 이는 사람들을 대접했다. 재수가 좋으면 술이랑 담배도 얻어먹을 수 있었다.

3.4.8. (줄) 매다/(줄) 무끄다

‘(줄) 매다’는 집줄을 지붕의 가로세로로 묶는 행위를 말한다. 지붕을 덮은 ‘새’가 흘러내리지 않게 ‘집줄’로 동여매는 일을 ‘(줄) 매다/(줄) 무끄다’ 또는 ‘(집줄) 매다/(집줄) 무끄다’라고 한다. ‘무끄다’는 표준어 ‘묶다’의 방언형이다. ‘집줄’은 ‘진줄’과 ‘쯔른줄’로 이루어진다.

(28) ㄱ. 집줄은 ㄱ로 메고 지러기로 메곡 허영은에 두 식으로 줄 메영. 게날 동네들광 수늘명 삭은 안 주명 수늘명 서르서르 매 집의 집을 일게 뉘난.(집줄은 가로 매고 길이로 매고 해서 두 식으로 줄 매어. 그러니 동네들과 품앗이하며 샅은 안 주며 품앗이하며 서로서로 매 집에서 집을 이게 되니까.)<김순자, 2012:194>

ㄴ. 집줄은 평균적으로 삼간집, 저 열다섯 평에서 스무 평 사이에서 진줄 스물세 개에서 스물다섯 개, 짧은 줄은 사십 개 정도 들어 마씨.(집줄은 평균적으로 삼간집, 저 열다섯 평에서 스무 평 사

이에서 긴 줄 스물세 개에서 스물다섯 개, 짧은 줄은 사십 개 정도 들어요.)<강○용>

예문 (28)을 보면, 집줄은 ‘ㄱ로 메고 지러기로 맨’다. 여기에서 ‘ㄱ로’는 표준어 ‘가로’, ‘지러기’는 ‘길이’, 즉 ‘세로’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표준』에는 ‘길이’를 ‘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 방언에서는 ‘가로’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쓰였다. 집의 크기와 주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삼간집이면 대략 ‘진줄’이 스물세 개에서 스물다섯 개, ‘쯔른줄’이 마흔 개쯤 필요하다. ‘진줄’은 표준어 ‘긴 줄’, ‘쯔른줄’은 ‘짧은 줄’에 해당한다. 집줄을 댈 때도 품앗이로 해결했음을 알 수 있다. 지붕을 동여매다 남은 ‘집줄’로는 ‘정젓방석’을 만들거나 방석 모양으로 엮어서 부엌의 ‘창굽’을 막는 데 사용하였다. ‘집줄’은 ‘(줄)을 놓고, 비고, 뒤치고, 어울리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3.4.9. (줄) 봉을르다

‘(줄) 봉을르다’는 집줄을 거왕에 뽕뽕 매다는 뜻을 지닌 어휘다. ‘거왕’은 왕대나 기다란 나무로 만드는데, 표준어 ‘평고대’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29) 집 일면은 메칠 줌자근에 느슨하게 이렇게 줄을 뽕경 새로 무껴줘야 뉘여마씨. 그걸 줄 봉을르다.(집 일면 며칠 잠자서 느슨하게 이렇게 줄을 당겨 새로 묶어 줘야 되어요. 그걸 ‘줄 봉을르다’.)<강○용>

지붕을 띠로 인 다음에는 ‘집줄(진줄, 쯔른줄)’로 동여맨다. 어느 정도 잠을 자면 다시 집줄을 당겨서 거왕에 단단하게 묶는 것을 ‘줄 봉을르다’라고 한다.

3.4.10. (가지) 박기/(처마) 박기/(알) 박기

‘(가지) 박기/(가제) 박기’는 처마의 틈을 메우기 위하여 ‘각단’ 따위로 처마 안으로 박는 행위를 말한다. 처마의 틈을 잘 메워줘야 ‘서리’(서까래)와 ‘서슬(산자)’이 보호되어 집을 오랫동안 보전할 수 있다. ‘가제 박기’ 대신에 ‘처마 박기’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가지/가제’는 표준어 ‘처마’의 대응어다.

(30) ㄱ. 집 일게 뉘면은 그 처마 박기엔 해근에, 가제 박기엔 해영 처마 그걸 안 박아주면은 얹아지꼭 그 마모가 뉘기 때문에 이삼년에 혼 번씩은 꼭 처마를 박아줘야 뉘마써.(집 이게 되면 ‘처마 박기’라 해서, ‘가제 박기’라고 해서 처마 그걸 안 박아주면 얹아지고 그 마모가 되기 때문에 이삼 년에 한번씩은 꼭 처마를 박아줘야 돼요.)<강○용>

ㄴ. 알 영 찢르는 건 줌지롱헌 어욱 그거 비여당 툇툇 찢르는 거.(아래 이렇게 찢르는 건 가느스름한 억새 그거 베어다가 툇툇 찢르는 거.)<김순자, 2008:187>

처마의 틈을 막을 때는 ‘각단’이나 ‘억새’를 이용하였다. 처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각단’을 이용하여 촘촘하게 처마의 빈 공간을 메워 주는 것을 ‘가지(가제) 박기’라고 한다. ‘가지 박기’는 ‘알 박기’라고도 하는데, 예문 ‘(30) ㄴ’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 이호동에서는 이를 ‘알 찢르다(찌르다)’라고도 하였다. ‘알’은 표준어 ‘아래’의 대응어로, 여기에서 ‘알’은 ‘처마 끝’의 의미로 쓰였다.

3.5. 민속 관련 어휘

3.5.1. 흑밥

‘흑밥’은 성읍1리에서 집 벽체에 흙 바르는 일을 할 때, 일꾼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짓는 밥을 말한다. 집을 짓는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 ‘흑밥’을 해다가 일꾼들을 대접하였다.

(31) ㄱ. 흑질허젠 허민 흑밥도 허고 돈으로 현찰로 부주허는 사름도 있어.(흑질하러고 하면 흑밥도 하고 돈으로 현찰로 부조하는 사람도 있어.)<송○원>

ㄴ. 흑밥은 흑질할 때 밥해 가는 거. 친족덜이나 권당덜이. 흑밥엔 해근에 밥해당은에 아침도 맥이고 점심도 맥이꼭.(흑밥은 흑질할 때 밥해서 가는 거. 친족들이나 권당들이. 흑밥이라고 해서 밥해서 아침에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이○생>

‘흑밥’은 초집을 짓는 사람의 일가 친족들이 흠일을 할 때 일꾼들에게 대접하는 아침이나 점심을 가리키는 말이다. ‘흑(흠)+밥’ 구성으로, 여기에서 ‘흑’은 ‘흑질을 할 때 해가는’의 의미로 쓰였다. 『표준』은 물론이고 『제주어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다.

3.5.2. 흑피력/피력

‘흑피력’은 ‘흑불릴’ 때나 ‘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뜻으로 대접하는 밥이나 떡 등을 가리킨다. ‘흑+피력’ 구성으로, ‘흑’은 ‘흠’, ‘피력’은 ‘필역(畢役)’에서 온 말이다. 장사가 났을 때 상제들이 장지에서 상두꾼에서 별도로 베풀었던 떡 따위를 가리켜서도 ‘피력’이라고 한다.

(32) 흑불릴 때 방상덜은 밥해 가고. 피력이라고 떡도 해당 맥이고. 방상 좋은 디 모멸만두나 돌레떡으로도 허꼭. 흑피력이라고 흑질허는 날엔 막 세주게.(흠 밟을 때 친족들은 밥해서 가고. 필역(畢役)이라고 떡도 해다가 먹이고. 친족 좋은 데 메밀만두나 도래떡으로도 하고. ‘흠필역’이라고 흑질하는 날이라고 매우 폼아.)<이○생>

‘흑피력’은 집을 짓는 사람의 친족들이 해간다. 보통 ‘돌레떡’이나

‘ㄹ땨만뒤’를 해가서 일꾼들을 대접하였다. ‘돌레떡’은 메밀 등으로 등글넓적하게 만든 떡으로, 표준어 ‘도래떡’에 대응한다. ‘ㄹ땨만뒤’는 메밀로 반달 모양으로 집어서 안에 팔소를 넣어서 찌낸 다음 곁에 팔을 묻힌 떡이다. ‘ㄹ땨만뒤’는 ‘ㄹ땨+만뒤’ 구성으로, ‘ㄹ땨’은 ‘메밀’, ‘만뒤’는 표준어 ‘만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3.5.3. 달구소리

‘달구소리’는 성읍1리에서 집 지을 땅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다.

- (33) ㄱ. 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봉분 쌓을 때 허는 달구소리가 틀리곡. 선소리는 똑같은데 봉분 쌓을 때는 구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해서 멀구라고 하고.(‘달구소리’도 두 가지가 있는데, 봉분 쌓을 때 하는 ‘달구소리’가 다르고. 선소리는 똑같은데 봉분 쌓을 때는 귀신이 빨리 물러가라고 해서 ‘멀구’라고 하고.)<송○원>
- ㄴ. 이 삼간집을 짓젠 허면은 땅을 이렇게 사각으로 광 담 달 자리를 다지주. 땅을 영 흙지완 이디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 허면서 땅을 다지주.(이 삼간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이렇게 사각으로 파서 담 쌓을 자리를 다지지. 땅을 이렇게 흙을 지워서 여기 자갈을 놓아서 다져. 이때 달구소리 하면서 땅을 다지지.)<송○원>
- ㄷ. 어허여 달구/우럭삼촌 들어덜 뽕서/에헤여 달구야 /볼락조케 굴으라 듣져/어허여 달구야/간밤에 꿈을 보난/어허여 달구야/췌공쟁이 걸러베고/어허여 달구야/대구덕에 놓아베곤.(송○원)

예문 ‘(33) ㄱ’을 보면, 성읍1리에서는 봉분을 쌓아서 다지는 소리는 ‘멀구소리’라 하여 집 지을 때 땅을 다지는 ‘달구소리’와 구분하고 있다. 『표준』 등에는 ‘달구소리’를 ‘시신을 땅에 묻고 흙과 회를 다지며 부르는 경기 민요의 하나’라고 풀이하고 있다. ‘달구소리’와 함께 조사된 ‘멀구소리’는 『제주어사전』과 『제주말큰사전』 등 방언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어휘로, 이번에 처음 조사되었다. 예문 ‘(34) ㄷ’은 달

구소리의 노랫말로, 바닷고기인 우럭과 볼락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낚시꾼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바닷고기와 같은 운명을 타고 났음을 꿈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5.4. 흙벼르는소리

‘흙벼르는소리/흙볼르는소리’는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대나무 따위를 엮어 만든 ‘튀기’에 흙을 바르면서 부르는 제주민요다. ‘튀기’는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를 말한다. 주로 대나무나 잡나뭇물을 깨서 만드는데, 표준어 ‘외(樑)’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34) ㄱ. 대나무를 요렇게 놔서 요렇게 엮고 요렇게 엮어서 이디 흙 볼르는 게 튀기라. 튀기 허영 흙 베틀 때 허는 소리가 잇주.(대나무를 요렇게 놔서 요렇게 엮고 요렇게 엮어서 여기 흙 바르는 게 외야. 외 해서 흙 바를 때 하는 소리가 잇지).(송○원)
- ㄴ. 이허어 혁이여 어이 오우 오우 혁이 뚜러메라/울러메라 어어어 어 메여치라 이여 혁이여 어어어 오 우 흙이 뚜러메라/요 집 짓 영 삼년 만에 이에 이 어 어 허어 아덜 낳면 효잘 낳라/어어허 어어 혁이 뚜러메라/딸은 낳면 어어어어 열닐 낳라 이여/허어어 혁이 뚜러메라.(송○원)

예문 ‘(34) ㄴ’은 흙을 바람벽에 바를 때 불렀던 ‘흙볼르는소리’의 일부다. ‘아들을 낳으면 효자를 낳고, 딸을 낳으면 열녀를 낳아라’는 노랫말은 유교 관념이 짙게 배어 있었던 시대상을 반영해 보여준다. 여기에서 ‘혁이여’는 ‘흙이야’, ‘뚜러메다’와 ‘울러메다’는 ‘둘러메다’, ‘메여치라’는 ‘메어치어라’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3.5.5. 물부주/물부조

‘물부주’는 성읍1리에서 큰일이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을 길어다 주는 일을 말한다. 주로 여성들이 ‘허벅’을 이용해서 물을 길어 날랐다. 앞의 예문 ‘(23) ㄷ’에서 보듯이, ‘혹질’을 하는 날은 30~40명이 허벅을 지고 나가 물을 길어다 주는데, 이때 길어다 주는 물을 ‘물부주’라고 한다. ‘물부주’는 집 짓는 큰일을 할 때 마을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는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어휘다. ‘부주’는 표준어 ‘부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5. 결론

주거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 문화유산이다. 더욱이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비바람이 많은 자연환경적인 영향으로 집의 구조나 형태, 재료 등에서 독특한 주거 문화를 양산해냈다. 지붕은 세찬 바람에 견딜 수 있게 ‘집줄’로 동여매었고, 벽체는 돌로 쌓은 후에 흙을 발라 완성하였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은 다른 지역과 유다르게 주거 문화와 관련한 독특한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어 썼다.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주거 문화와 관련된 어휘를 ‘집 명칭·내부 공간·외부 공간·건축 행위·민속 관련’ 등 다섯 개의 범주로 나눠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지역의 주거 문화 관련 어휘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주거 문화 관련 제주도 방언 어휘망을 구축함으로써 제주 전통 주거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 명칭은 규모에 따라서 ‘이간집·삼간집·스간집’, 위치에 따라서 ‘안거리·뱃거리·모커리’, 용도에 따라서 ‘이문간·도새기집·쉐막·불치막’ 등으로 분화해 나타나고 있었다. 내부 공간은 ‘구들·삼방·고팡·뿃마리·정지·굴묵·시렁·장궤’, 외부 공간 관련 어휘는 ‘마당·무똥·장황뒤·우연·통시·올레·풍채·물팡·춤·팡

돌' 등으로 구성되었다.

건축 행위 관련 어휘의 경우, '(줄) 놓다·(줄) 비다·(줄) 매다·(줄) 어울리다·(줄) 봉을르다' 처럼 집줄 관련 어휘와 '흑 꾸다·흑 툴리다'와 같이 '흑질' 관련 어휘가 호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집줄(진줄, 짝른줄), 올레(면올레, 빈딘올레), 구들(큰구들, 작은구들)처럼 상하 관계의 어휘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둘째, 표준어와 어형이 같은 주거 문화 관련 어휘가 뜻풀이가 다르게 올라 있거나 정보가 잘못된 어휘들도 있었다. '돌집'의 경우, 제주에서는 돌로 벽체를 지은 초가를 가리키는데 「표준」에서는 '돌로만 지은 집'을 말한다. 또 '초집'을 '함경북도의 방언'으로 풀이하거나, 방의 방언형인 '구들'을 '굴뚝'의 방언으로 주석을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시렁'은 표준어 '벽장', '상방'은 표준어 '대청마루'처럼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어휘도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전의 뜻풀이를 할 때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전에 올라 있는 얇은 주거 문화 관련 어휘도 발굴해 보고 함으로써 방언 어휘뿐만 아니라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었다. 돼지가 사는 집인 '뚝집', 두 칸으로 된 '이간집', 네 칸으로 된 '사간집', 제주의 초가지붕을 동여매는 '집줄'과 하위어인 '진줄'과 '짝른줄', '올레'의 하위어인 '면올레'와 '빈딘올레', 마루에 설치한 불박이장인 '장래'는 이번에 새로 추가한 어휘다.

넷째, 주거 문화와 관련된 민속 어휘도 조사해 보고하였다. '흑밥', '흑피러', '몰부조', '흑버르는소리' 등의 민속 관련 어휘와 흙질을 할 때 마당의 흙을 파서 이용했기 때문에 마당이 집보다 낮다는 등의 문화적 요소를 확인한 것도 이번 연구의 수확이다.

다섯째, 이 연구를 통해 조사, 수집된 어휘 자료와 용례는 주거 문화 관련 어휘를 국어사전 등의 올림말로 선정할 때 참고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주거 문화 관련 교육과 연구의 밑거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주거 문화 관련 어휘는 민속학이나 건축학, 사회학 등의 다른 영역과 융합한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일곱째,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인 전통 주거 관련 언어 자료와 문화가 일실되기 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집의 부분 명칭, 문 이름, 주거 관련 문화, 부속물 등에 대한 어휘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 문헌

- 강영봉. 2001. “제주어의 주거 생활 어휘.” 『영주어문』(영주어문학회) 3. 3-12.
- 강영봉. 2014. 『표준어로 찾아보는 제주어사전』, 제주: 도서출판 각.
- 강영봉 · 김동운 · 김순자. 2010. 『문학 속의 제주 방언』, 서울: 글누림.
- 김순자. 2008. 『나, 육십육년 물질허멍 살안』(제주시 이호 마을 고순여 할머니 생애 구술) 제주: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 김순자. 2012. 『앞명에랑 들어나 오라 뒷명에랑 나고나 가라』(제주시 애월읍 수산마을 흥진규 할머니 생애 구술) 제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김순자. 2016. 『제주 사람들의 삶과 언어』, 제주: 한그루.
- 김순자 외. 2016.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고광민. 1999. “옛 살림집 들여다보기.” 『제주학』(사단법인 제주학연구소) 4. 10-21.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995. 『한국민속대관』 2(일상생활, 의식주).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 동아.
- 김영돈. 1997. 『제주 성읍 마을』, 서울: 대원사.
- 김홍식. 1984. “성읍리 공간구성의 연구.” 『제주도연구』(제주도연구회) 1. 제주: 제주도연구회. 221-254.

- 남광우 편저. 1997/2009. 『교학 고어사전』. 서울: (주)교학사.
- 문화재관리국. 1977.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서울: 형설출판사.
- 박용후. 1960/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박재연 · 이현희 주편. 2016. 『고어대사전』. 서울: 선문대학교출판부.
- 서정섭. 2000. “‘집’ 관련 어휘 연구.” 『국어문학』(국어문학회) 35. 국어문학회. 51-67.
- 송상조. 2007. 『제주말 큰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신석하. 1976.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초가의 공간구성 체계에 관한 조사 연구.” 『논문집』 18. 제주: 제주실업전문학교.
- 신석하. 1988. “제주도 초가의 비례 구성에 관한 연구-상방공간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주: 제주도연구회. 163-174.
- 왕한석. 2010. 『한국의 언어민속』(전라남북도 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유창돈. 1964. 『이조어사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위진 · 손희하. 2005. “주거공간문화와 언어: 전남 장흥 지역 주거공간 어휘 -‘말레, 물레’에 대하여.” 『호남문화연구』 36. 61-90.
- 제주도. 1996. 『제주의 민속』 4 제주: 제주도지편찬위원회.
- 한글학회. 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서울: 어문각.
- 현평효. 1962.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서울: 정연사.
- 현평효 외. 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Muriel Saville-Troike 지음 · 왕한석 외 옮김. 『언어와 사회』(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 디지털서귀포문화대전 사이트.

김순자 (Kim, Soon-ja)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9154
 전자우편: sj4765@jst.re.kr

원고접수일: 2018. 06. 29
 심사완료일: 2018. 07. 15
 게재결정일: 2018. 07. 20